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 계획 업계 단합 위한 조력자 역할 수행



김득주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우리 협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임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질이나 경륜으로 보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 열린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득주 신임회장은 오랜 전통이 있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양식품(주) 디자인실과, 대흥기획을 거쳐 현재 디토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득주 회장은, 지난해부터 단국대 예술조형대학 시각디자인과 외래교수, 서울디자인컨설턴트 클럽 회장직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일반 회원전’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의 회원콘테스트전’ ‘아시아 패키지디자인 교류전’ 등에 참여하는 등 해외 포장디자인관련 행사에 동참하는 등 회원들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노력해 왔다.

김득주 회장은 임기 기간 동안 “전임 회장단들이 만들어 놓은 초석 위에서 회원들이 협회와 업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업계에 크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협회는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 30년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 30년사를 통해 국내 패키지 디자인역사를 다루어 보는 한편, 유명제품의 연표와

함께 패키지디자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을 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열리는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에 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 대전의 수상작과 회원전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기업과 학생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그룹'의 학생선발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학생 씬머캠프'를 열어 패키지디자인관련 이론학습과 실제 포장디자인과제를 부여, 현업에서 활동하는 중견디자이너의 지도아래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포장디자인대전, 아시아패키지디자인대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주 회장은 "패키지디자인은 말 없는 세일즈맨이다"라는 한줄 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치는, 소비자와 직접 대화하는, 소비자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이어야만 좋은 패키지디자인이라는 것.

그러나 패키지디자인업계에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적잖은 애로사항도 있음을 토로한다. 첫 번째로 지적재산가치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 그는 "클라이언트의 최고경영자나 핵심임원의 디자인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디자인 개발비가 제품 개발비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그는 디자인이야말로 제품 개발비 속에서도 중요한 핵심 투자비라고 강조하면서 기술력이나 제품의 품질은 이제 평준화된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패키지 형태나 소재, 외관디자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두 번째로 디자이너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에 소속된 디자이너들이 내부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여 디자이너들이 회사에 기여

하는 기여도를 인식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마케팅역량이 뛰어난 대기업이나 디자인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경우 경험 많은 디자인업체를 선별하여 제대로 된 용역비로 좋은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디자인업계에 팽배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적 개발"이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김 회장은 패키지디자인 분야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 개발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적 차별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장방법이나 소재, 표면디자인이 한국적인 색깔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 그는 해외 포장기자재기술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인 소재와 형태를 개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제품생산업체와 포장소재업체의 협력이 요구되며 패키지디자인협회 역시 제조업체와 포장기술술루선을 가진 업체를 협업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느 조직이던 간에, 운영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터. 김 회장은 협회의 사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사인만큼 정부나 유관 기관에서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 임원진과 회원, 법인회원, 기업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는 김득주 회장. 전임 회장단의 추진사업을 계승하는 한편, 보다 나은 제도로 회원들의 권익을 얻고자 하는데 가장 주력하겠다고 밝히는 그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